

【韓国昔話】フンブとノルブ

흥부와 놀부

場面 1 家から追い出されるフンブ家族

장면 1 집에서 쫓겨나는 흥부 가족

어느 한 마을에 욕심 많은 형 놀부와 마음 착한 동생 흥부,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놀부는 유산을 혼자 다 차지하고서 흥부를 내쫓았습니다. 흥부는 부인과 자식들을 이끌고 작은 초가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흥부는 늘 가난했고 어린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場面 2 ノルブの妻にしゃもじで頬を叩かれるフンブ

장면 2 놀부 아내에게 밥 주걱으로 뺨을 맞는 흥부

흥부는 할 수 없이 놀부에게 쌀이라도 빌릴까 하여 놀부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안에 계세요?" 그때 마침 놀부 아내가 나왔습니다. "형수님. 배가 너무 고파서요. 쌀 좀 빌릴 수 없을까요."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나가지 못해?" 매정한 놀부의 아내는 들고 있던 밥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때렸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던 흥부는 뺨에 붙은 밥풀을 떼어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場面 3 脚が折れたツバメのヒナを治療し、面倒を見るフンブ

장면 3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치료하고 돌봐 주는 흥부

속이 상한 흥부가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이 한데 모여 웅성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 아기 제비가 뱀을 피해 도망가다 동지에서 떨어졌어요" "이런, 안됐구나" 흥부는 바닥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새끼 제비의 다리를 치료해 주고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場面 4 ツバメがくれたウリの種を植え、たくさんのウリが実る

장면 4 제비가 준 박씨를 심고 박이 잔뜩 열림

따스한 보살핌 덕분에 다리가 나은 제비는 겨울이 되자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봄이 되자 흥부네 집을 다시 찾아와 마당 위를 맴돌다 박씨를 떨어뜨렸습니다.

“아이쿠. 제비가 보답을 하나 보다”

흥부는 제비가 준 박씨를 심었고 가을이 되자 지붕 위에 큰 박이 많이 열렸습니다.

場面 5 半分に割ったウリの中から溢れ出る金銀財宝

장면 5 반으로 가른 박에서 쏟아져 나오는 금은보화

“박을 타서 속을 파내어 죽이라도 만들어 먹어 볼까”

흥부네 식구들은 모여서 박을 탔습니다.

박이 반으로 갈라지고 안에서는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른 박에서도 계속해서 쌀과 보물이 쏟아져 나와 흥부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場面 6 わざとツバメの脚を折るノルブ

장면 6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는 놀부

흥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놀부는 샘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뭐?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쳐주고 부자가 되었다고? 흥!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놀부는 일부러 제비 둥지에서 새끼 제비를 꺼내어 다리를 부러뜨린 후 대충 싸매 주었습니다.

이듬해 놀부네 집에도 제비가 찾아와 박씨를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場面 7 ウリの中から出てきたトッケビに叱られるノルブと妻

장면 7 박속에서 나온 도깨비에게 혼나는 놀부와 놀부 아내

놀부도 박씨를 심었고 커다란 박이 열렸습니다. 신이 난 놀부가 아내와 함께 박을 탔습니다.

박을 타자 안에서 도깨비가 나타나서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놈이 멀쩡한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놈이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놀부를 혼내 준 도깨비는 집안의 값비싼 물건과 돈을 몽땅 빼앗아 집에는 무엇 하나 남지 않았습다.

場面 8 自らの過ちを後悔し涙を流すノルブと、それを慰めるフンブ

장면 8 잘못을 후회하며 우는 놀부와 형을 위로하는 흥부

“아이고, 망했다. 망했어.” “형님, 괜찮으세요?”

마음씨 착한 흥부는 가난뱅이가 된 놀부에게 돈과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흥부야.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다오.” 놀부는 울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이 후 두 형제는 서로를 위하며 화목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